

테니스 투어가 '코로나 투어'로...조코비치 확진

관중 수천명 입장 미니투어 개최 마스크 미착용 등 거리두기 소홀 선수 4명 등 확진자 잇따라 발생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33·세르비아·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코비치는 23일(한국시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조코비치는 최근 ATP 투어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상황에서 아드리아 투어라는 미니 투어를 기획, 13일부터 이틀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1차 대회를 치렀고 20일부터 이틀간은 크로아티아 자다르에서 2차 대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2차 대회 마지막 날인 21일 경기를 앞두고 그리고르 디미트로프(불가리아)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후 보르나 초리치(크로아티아), 빅토르 트로이츠키(세르비아)가 연달아 확진

자로 분류됐다.

조코비치는 2차 대회 개막을 앞두고 디미트로프 등과 함께 농구 경기를 하는 등 21일 디미트로프의 확진 판정 이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코비치의 아내 엘레나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고 조코비치의 자녀(1남 1녀)들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조코비치가 기획한 아드리아 투어는 1, 2차 대회에 관중이 수천 명씩 입장했으나 선수와 팬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중석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고, 선수들도 경기를 마친 뒤 클럽에서 파티를 여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1, 2차 대회 출전한 선수 가운데 조코비치를 비롯해 디미트로프, 초리치, 트로이츠키 4명이 코로나19에 걸렸고, 조코비치의 아내와 트레이너, 디미트로프의 코치, 트로이츠키의 아내 등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조코비치는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코비치는 "이 대회는 순수한 마음과 좋은 의도로 기획한 것"이라며 "감염 사례가 나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자가 격리 생활을 할 예정이며 5일



후 재검사를 받기로 했다.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조코비치는 8월 말과 9월 말에 각각 열리는 US오픈과 프랑스오픈 출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또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는 무릎 부상으로

2020시즌을 이미 마무리한 바 있어 앞으로 올해 메이저 대회나 ATP 투어 일정이 진행될 경우 조코비치,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 페더러의 남자 테니스 '빅3' 가운데 나달 혼자 코트를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테니스 올림픽 금 앤디 머리 7개월만에 치른 경기서 승리

테니스 남자 단식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앤디 머리(33·영국)가 7개월 만에 치른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29위 머리는 2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시범 경기 '배틀 오브 더 브리츠'에서 리암 브로디(21위·영국)를 2-0(6-2 6-2)으로 제압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단식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목에 건 머리는 지난해 11월 데이비스컵 이후 약 7개월 만에 코트에 나섰다.

머리는 고질적인 고관절 부상 때문에 지난해 11월 데이비스컵 이후 공식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현재 ATP 투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경기는 머리의 형인 제이미 머리가 기획한 이벤트 대회다. 경기 실황을 온라인으로 중계, 수익금을 모아 10만파운드(약 1억5000만원)의 성금을 코로나19 관련 기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대회는 6일간 이어지며 무관중에 선심이나 불퍼슨 없이 진행된다. 선수들은 코트를 바꾸지 않고 계속 한쪽 코트에서만 경기하며 머리와 브로디 외에 다니엘 에번스(28위), 카일 에드먼드(44위) 등이 출전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화들짝'...한숨 돌린 KLPGA

확진자 밀접 접촉한 캐디 음성 판정 BC카드·한경레이디스컵 예정대로 연습라운드 대신 코스 답사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된 경기도 포천힐스 컨트리클럽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BC카드·한경레이디스컵이 예정대로 개최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캐디가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나왔다는 보건 당국의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캐디는 보건 당국이 지목한 유일한 밀접 접촉자였다.

지난 19일 포천힐스 컨트리클럽에 다녀간 내장객이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회 조직위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포천힐스 컨트리클럽을 일시 폐쇄하고 이를 동안 긴급 방역 작업을 벌였다. 24일 연습 라운드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예정대로 25일부터 나올 동안 BC카드·한경레이디스컵을 포천힐스 컨트리클럽에서 무관중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밀접 접촉 캐디의 음성 판정 결과와 보건 당국 역할 조사관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결정이라며 대회 조직위는 추가 방역 조치로 안전한 대회를 다짐했다.

대회 조직위는 이미 취소한 연습 라운드 대신 24일에 원하는 선수와 선수 캐디의 코스 답사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드라이빙 레인지와 연습 그린도 이날부터 개방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엘리트 선수 본격 육성 나선다

스포츠클럽 창단 지원사업 선정

광주시체육회가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을 바탕으로 엘리트 선수 육성에 나선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2020 스포츠클럽 신규 전문선수반 및 해체운동부 흡수 클럽 창단 지원사업'에 선정돼 하반기에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지난 2013~2017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된 지역 스포츠클럽 가운데 올해 기금 사업이 종료되는 클럽을 대상으로 했다. 지원 부문은 전문선수반 운영 클럽, 학교운동부

가 해체됐거나 해체 예정인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이 흡수해 재창단 계획이 있는 클럽이다.

전문선수반 운영 부문에는 광산남부스포츠클럽과 동구스포츠클럽이 선정돼 5개 종목(광산남부 수영·축구·배드민턴, 동구 축구·배드민턴)이 지원받게 됐다. 해체운동부 흡수 창단 지원 부문에는 빛고을스포츠클럽이 1개 종목(탁구)에 선정됐다.

시체육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눈앞의 성과보다는 열악한 종목의 선수 자원을 강화해 나가고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연계육성, 나아가 은퇴 선수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 도로영 맹연습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 제시 디긴스와 스트라톤 마운틴 학교 동료들이 지난 23일 미국 버몬트주 런던데리에서 롤러스키를 탄 채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 구성

김창준 시체육회장, 공동단장 맡아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공동단장을 맡는다.

24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과 방영 대한민국농구협회장이 추진위 공동 단장을 맡았고, 지방체육회장과 종목단체회장 등 51명이 추진위를 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체육회는 현재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17개 시

도체육회·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이를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방체육회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포트) 수익금 중 일부를 체육회로 우선 배분해 현안인 학교 운동부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체육인 일자리 부족·취우 개선 등을 해결하도록 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기대한다고 체육회는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주 골프장서 하루에 홀인원 3개·앨버트로스 1개 '진기록'

호주의 한 골프장에서 하루에 홀인원 3개와 앨버트로스 1개가 나왔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워커는 24일 "호주 빅토리아주의 서틴스 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지난 20일 하루에만 홀인원 3개와 앨버트로스 1개가 나왔다"며 "홀인원 3개 중 2개는 같은 조에서 연달아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틴스 비치 골프 링크스는 올해 2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ISPS 한디 빅 오픈이 열린 장소다.

파3 12번 홀에서 같은 조로 경기를 해리 앤더슨과 피터 머틀리라는 사람이 연속 홀인원을 달성했고 다른 그룹에서 골퍼를 친 트레이비스 모트도 이날 '홀인원 파티'에 동참했다.

또 토비 워커라는 사람은 파5인 4번 홀에서 두 번째 샷으로 홀아웃하며 한 홀에서 3타를 줄이는 앨버트로스를 잡았다.

미국 국립 홀인원 기록실에 따르면 4명이 한 조를 이룬 그룹에서 같은 홀에서 2명이 홀인원을 할 확률은 무려 1700만분의 1로 나와 있다.

또 미국 기준으로 코스당 1년에 평균 홀인원이 나오는 횟수는 10~15회로 집계되는데 이날 이 골프장에서는 하루에 3개가 쏟아진 셈이다. 앨버트로스의 경우 홀인원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국립 홀인원 기록실에서 일관적인 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1만2000분의 1로 나와 있고, 미국프로골프협회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앨버트로스는 약 600만분의 1 정도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살아있다, 결백
2관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위대한 쇼맨, 에어로너츠
3관	배트맨 비긴즈, 엔딩스 비기닝스, 침입자
4관	#살아있다
5관	결백
9관	#살아있다
7관 씨네커틀	사라진 시간
8관 씨네커틀	#살아있다, 결백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 11시 음악산책
김선아의 유월의 소나타
2020. 6. 26.(금) AM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칠가방>
2020. 7. 3.(금) ~ 4.(토)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4SEASON
소리꾼 이자람 <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즐거움
문화산책